BOK 이슈노트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
Tel. 02-759-4205
leeyh@bok.or.kr

정강희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조사역
Tel. 02-759-4291
ghjeong@bok.or.kr

송병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팀장
Tel. 02-759-4297
bh.song@bok.or.kr

2025년 6월 17일

1 일반적으로 경기상황을 평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높으면낮으면 경기 상승하강 국면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통해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도 잠재성장률과 같은 평가의 기준이 있을까?**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추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즉, 실제 취업자수증가규모가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상회하회하면 고용 호조부진로 평가한다.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의미하며 15세 이상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인구증가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을수록 커진다.

2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최근 고용상황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 시계에서 추세 취업자수가 둔화되는 폭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였다.**

3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2011~15년 40만명에서 2016~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인 2021~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하락이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에 기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2016~19년에는 기술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면서 2011~15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 이지호 조사국장, 김영주 물가고용부장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남아 있는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한국은행

크게 높아지면서 하방압력을 일부 완충하였다. **금년 추세 취업자수$_{증가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반기중$_{1\sim5월중}$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4 **긴 시계에서 보면, 추세 취업자수$_{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어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추세 취업자수$_{증가규모}$의 마이너스 전환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_{stock}$는 지난해$_{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5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수$_{증가규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추세 취업자수$_{증가규모}$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투입이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GDP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후생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GDP 증가율은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도 소득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현재(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면서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6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하겠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활동참가율이 금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p 상승한다면$_{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만큼 추가 상승}$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기본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인당 GDP성장률은 연평균 0.3%p 높아지고, GDP대비 연금 · 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더해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겠으며,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 제도 개편, 경력단절 해소, 은퇴연령층 계속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다.

Ⅰ.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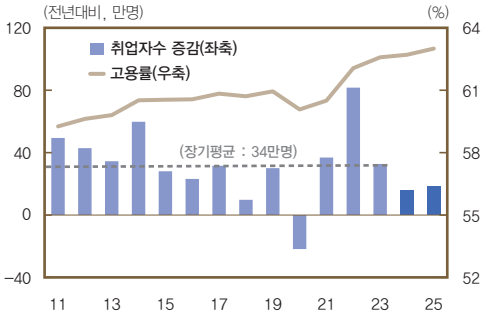
국내 취업자수는 증가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최근 취업자수는 10만명대 중후반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이후 11~23년 평균+34만의 높은 증가세와 비교해 보면 고용상황이 부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고용률도 금년 1~5월 중 63.0%계절조정 기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처럼 고용상황에 대한 지표가 엇갈리기 때문에 고용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경기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잠재성장률이 그 기준이 된다. 즉,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높으면 경기 상승, 낮으면 하락 국면으로 판단한다.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도 잠재성장률과 같이 중립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이 있을까? 미 연준, 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추세 취업자수」를 추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실제 취업자수증가규모가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상회하회하면 고용 호조부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통해 양호부진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추세 취업자수trend job growth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용 규모를 의미한다[1]. 추세 취업자수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인구 증가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을수록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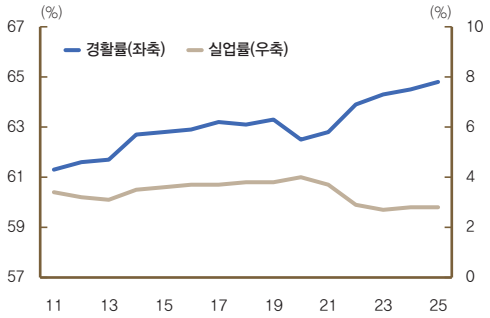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세 취업자수 추정 모형을 이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취업자수 증감[1] 및 고용률[2]



주: 1) 2018년은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2020년은 팬데믹 영향 등으로 고용 부진
2) 25년은 1~5월 기준, 고용률은 계절조정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2〉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1]



주: 1) 25년은 1~5월 계절조정 기준
자료: 통계청

1)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 수준을 상회하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밑돌고, 추세 수준을 하회하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웃돌게 된다(Bidder *et al.*, 2016).

■ **최근 고용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 **국내 고용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까?**

■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분석 결과,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수$_{증가규모}$는 2011~15년 40만명에서 2016~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2021~24년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증가율 하락이 추세 취업자수$_{증가규모}$에 기조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한 가운데 2016~19년에는 기술진보,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면서 2011~15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하방압력을 일부 완충하였다. 금년 추세 취업자수$_{증가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반기중$_{1\sim5월중}$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2].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30년경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세 취업자수$_{증가규모}$가 마이너스 전환한다는 것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듦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취업자수$_{증가규모}$는 지속 감소하여 2050년경에는 2024년의 약 9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025년 후에도 취업자수 총규모$_{stock}$가 현재의 90% 가량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추세 취업자수의 축소가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고용둔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투입이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GDP 증가율도 구조적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GDP 증가율은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경제활동감소로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도 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면서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II장에서는 추세 취업자수 추정 결과와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실제 취업자수에서 추세를 제외한 부분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III장에서는 취업자수 흐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고

2) 본고에서 추정한 추세 취업자수는 양적 측면에서 고용상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고용의 질, 노동시장 슬랙(slack)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 취업자수 수준에 이르러 양적으로는 양호하더라도 다른 지표는 부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추세 취업자수뿐 아니라 여러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5.5월)에 수록된 "한눈에 보는 고용상황 : 거미줄 차트(spider chart)"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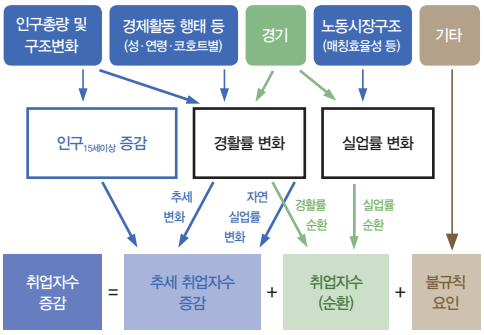
II. 추세 취업자수 추정 결과 및 특징

1. 추세 취업자수 결정요인 및 추정방법

추세 취업자수는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수로 15세 이상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3)]〈그림 3〉. 예를 들어,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세가 상승하면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커지게 되며, 자연실업률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줄어든다. 취업자수 증감은 15세 이상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1−실업률)의 변화로 분해할 수 있다[4)]. 따라서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추세를 각각 추정한 후 인구증가율에 합산하여 구할 수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성 · 연령 · 코호트별 출생연도 경제활동 참여 정도를 반영[5)]할 수 있는 모형을 주로 활용하여 추세 취업자수를 추정하였다(Aaronson *et al.*, 2006; Baller *et al.*, 2009 등). 추세 취업자수가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식별하기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림 3〉 취업자수 추세 · 순환 분해



2. 추세 취업자수 추정 결과

코호트 모형[6)]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2011~15년 평균 40만명에서 2016~19년 19만명으로 둔화되었다가 2021~24년중 32만명으로 증가하였다〈그림 4〉.

요인별로 살펴보면, 인구요인에 의한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11~15년 평균 29만명에서 2016~19년 19만명, 2021~24년 12만명으로 하락세를 나타내었다〈그림 4〉.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한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11~15년 12만명에서 2016~19년 −0.3만명으로 둔화되었다가 2021~

3) 산업구조 변화 등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도 추세 취업자수에 영향을 준다. 본고의 분석 모형에서는 이 같은 요인들이 경제활동참가율 추세, 실업률 추세(자연실업률)에 간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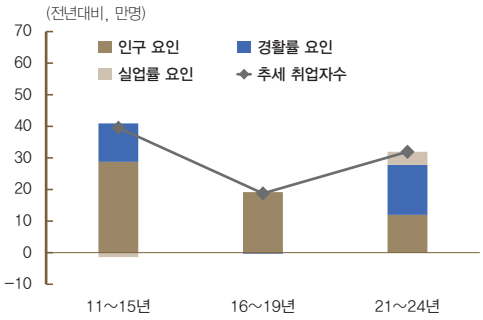
4) $E_t \equiv P_t \times \frac{LF_t}{P_t} \times \frac{LF_t - U_t}{LF_t}$ (단, E_t는 취업자수, P_t는 15세이상인구, LF_t는 경제활동인구, U_t는 실업자)라는 항등식으로부터 $\Delta E_t \approx \Delta P_t + \Delta lf_t + \Delta(1-u_t)$ (단, lf_t는 경제활동참가율, u_t는 실업률)을 도출할 수 있다.

5) 주요 문헌을 참고하여 성×연령 하위그룹별로 계량모형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였다. 계량모형에는 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 사회제도적 효과 등이 포함된다. 연령효과는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를, 코호트 효과는 출생연도별 특성이 전 생애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한다. 사회제도적 효과는 교육수준, 기대수명 등의 영향을 식별한다. 한편, 사회제도적 요인을 계량모형 변수로 반영한 본고와 달리 일부 문헌에서는 하위그룹 자체를 더 세분화하기도 하였다(예 : 성×연령×교육수준×인종).

6) 추세 취업자수 추정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코호트 모형뿐 아니라 ❶ 경기요인 추출 모형(Summers *et al.*, 1981), ❷ 미 연준 이중평활 모형(Aaronson *et al.*, 2016 등), ❸ 일방향 HP 필터, ❹ 은닉인자 모형(강규호 · 오삼일, 2024) 등을 통해 강건성을 점검하였다. 추정 결과 19~24년 평균 27~31만명으로 코호트 모형 결과와 유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추세 취업자수 추정모형 개요」를 참조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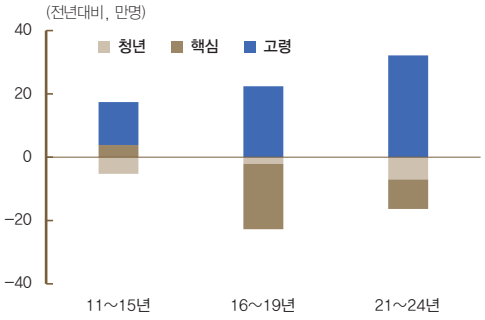
24년 16만명으로 확대되었다〈그림 4〉. 2016~19년에는 산업 · 직업 구조변화에 따른 중 · 저숙련 일자리 감소,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등으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남성 핵심연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박창현 · 유민정, 2020)〈그림 5〉〈그림 6〉. 팬데믹 이후에는 근로조건 및 사회적 통념의 개선(유연근무제 확산, 부부 육아 분담 증가), 서비스업 발전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오삼일 외, 2023; 이동원 외, 2023)〈그림 6〉.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으로 자연실업률이 소폭 낮아진 점도 추세 취업자수 상방요인으로 작용했다(오삼일 외, 2022).

〈그림 4〉 추세 취업자수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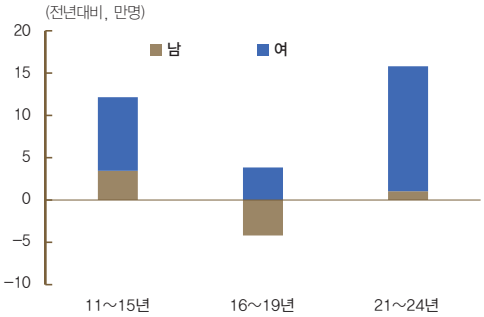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그림 5〉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요인 연령별[1] 기여도



주: 1) 청년층은 15~29세, 핵심연령층은 30~59세, 고령층은 60세 이상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그림 6〉경제활동참가율 추세요인 성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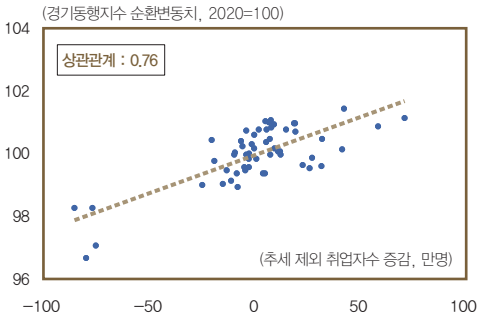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3. 순환추세 제외 취업자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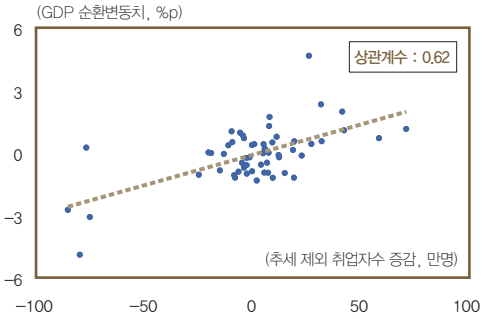
취업자수에서 추세를 제외한 취업자수(이하 순환 취업자수)는 경기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7〉~〈그림 9〉. 특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의 상관관계가 GDP갭보다 높았으며 이는 국내고용이 전체 경기보다 내수 경기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7〉 순환 취업자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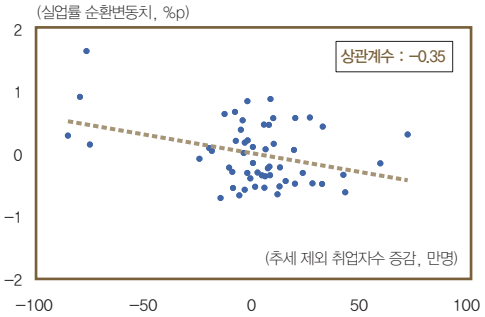
주: 1) 11.1/4~24.4/4 기준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그림 8〉 순환 취업자수와 GDP갭[1)]



주: 1) 11.1/4~24.4/4 기준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그림 9〉 순환 취업자수와 실업률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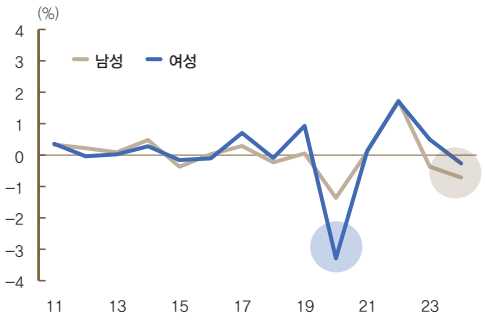


주: 1) 11.1/4~24.4/4 기준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순환 취업자수를 경제활동참가율 순환과 실업률 순환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순환(상관계수 0.76)이 실업률 순환(0.53)보다 경기와 더욱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가 기업 노동수요(실업↔취업자) 외에 가계의 노동시장 참여 의사결정(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즉 노동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불황일 때 경제활동참가를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7)].

순환 취업자수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팬데믹 충격과 그 회복 과정에서는 여성 고용이, 최근에는 남성의 고용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팬데믹 기간중에는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주로 위축된 데다 양육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성 노동공급이 크게 영향받은 데 기인한다(오삼일 외, 2023). 반면 최근에는 남성 고용 비중이 큰 제조업, 건설업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남성 고용이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 성별 순환 취업자수[1)]



주: 1) 순환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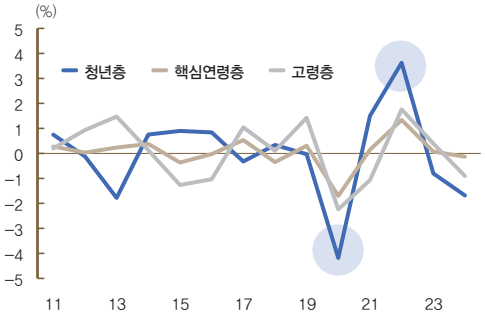
순환 취업자수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65세 이상(상관계수 0.67)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0.80)보다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이 경기 대응적으로 운용되는 데 주로 기인한다.

청년층의 경우 순환 취업자수와 경기의 상관관계가 팬데믹 이후에 높아졌다(상관계수 11~19년 −0.09 → 20~24년 0.82)〈그림 11〉. 팬데믹 이전에는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낮았

7) 이론적으로 경기는 가계의 경제활동참가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경기가 불황일 때 근로자는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할 수 있고(실망실업자 효과, discouraged worker effect), 반대로 가계소득 부족 등으로 노동시장에 더 참여할 수 있다(부가노동자 효과, added worker effect).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경기와 경제활동상태 변화율의 상관계수(11~24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망실업자 효과는 뚜렷하지만 부가노동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는데 청년 고용이 경기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팬데믹처럼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낮은 청년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여타 연령층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11〉 연령별 순환 취업자수[1)]



주: 1) 순환 취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Ⅲ. 취업자수 추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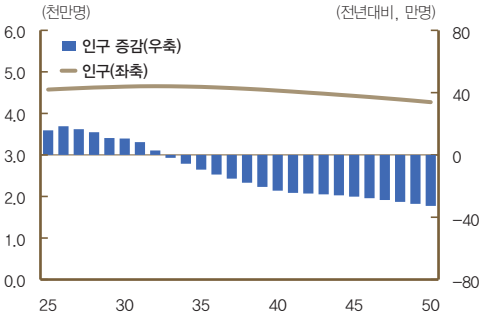
1. 전망의 전제

취업자수의 장기 추세를 전망하기 위해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자연실업률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제하였다. 인구 변화는 통계청 인구추계(중위)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8)] 〈그림 12〉. 경제활동참가율은 2030년경부터 완만하게 둔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9)]〈그림 13〉.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시에는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성 · 연령 그룹별(22개)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도 반영하였다. 인구구조 효과만으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하락[10)]하나, 하위그룹별 최근 변화를 반영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하게 하락하게 된다. 자연실업률은 내년부터는 금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 전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그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그동안의 추세가 지속[11)]되고 일부 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국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주도했던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국가 중 이미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러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점, 여성[12)] · 청년[13)]의 경우 경제활동의 구조적 제약요인 해소가 더딘 점 등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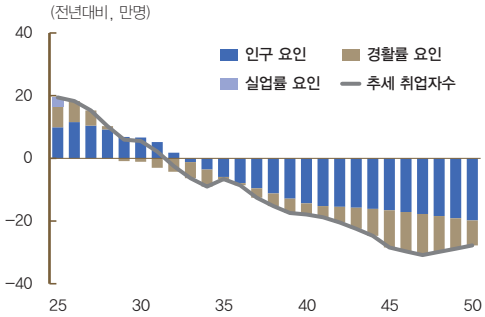
8) 인구와 자연실업률 전망에도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인구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 효율성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9) 자세한 설명은 〈참고 2〉「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전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 효과(between effect)와 인구집단 내 변화 효과(within effect)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 상승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고령층 자체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경제활동참가성향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으로 인구집단 내 변화 효과가 그동안 크게 작용하였으나 향후에는 고령층 비중 자체가 커지면서 인구구조 변화 효과가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11) 단 · 중기적 시계(10년 이내)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주는 경기, 제도 변화 등도 고려하여 전망하였다.
12)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30~40대가 낮은 M자형을 나타내는데 반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형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 비슷했던 일본은 2010년대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이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M자형 구조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13) 일본에서는 청년의 노동시장참여가 2012년 57.8%에서 2024년 65.4%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데다 정부가 청년뿐 아니라 그간 노동시장에서 제외되었던 세대에 대한 훈련, 취업알선 등에 적극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JILPT, 2024).

〈그림 12〉 15세 이상 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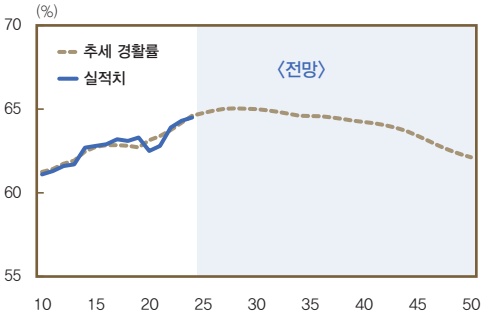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그림 14〉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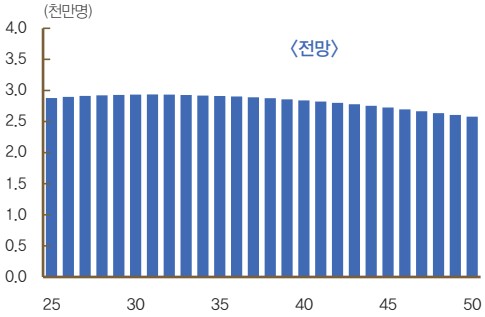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그림 13〉 추세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그림 15〉 추세 취업자수 전망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2. 취업자수 추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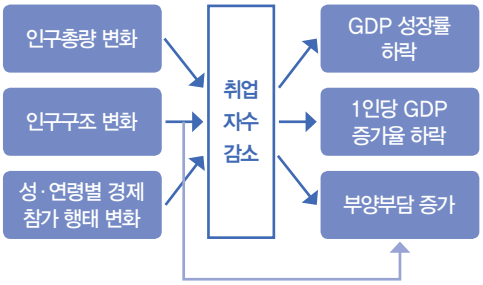
추정 결과, 향후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25~29년중 10만명대 초중반 수준으로 둔화되겠으며 2030년경부터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다〈그림 14〉. 취업자수 감소폭은 2040년대 후반까지 확대되다가 이후에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14]. 이에 따라 취업자수의 총규모는 2030년경 이후 감소하여 2050년에는 지난해$_{2024년}$의 9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5〉.

3. 경제적 영향

취업자수의 추세적 둔화는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25년 후에도 고용이 90%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자수 총규모가 완만히 둔화되더라도 생산성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제고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용 축소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15].

14) 이는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 취업자수 이외에 다양한 보완 지표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15) 다만, 고령 근로자가 과거보다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머물게 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시킬 전망이다(Daly *et al.*, 2025).

〈그림 16〉 취업자수 감소의 경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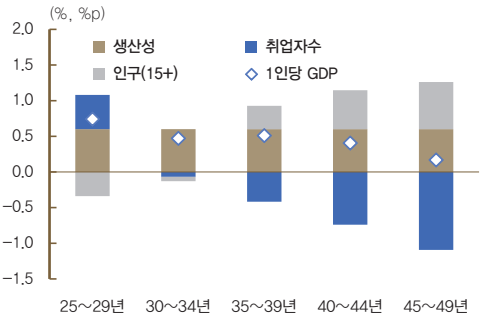


우선 GDP성장률 둔화 압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투입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취업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30년대경부터 노동은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마이너스 기여도는 점차 확대되어 2050년경이 되면 GDP성장률은 자본투입과 생산성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이은경 외, 2024).

둘째로 개인의 후생지표인 1인당GDP[16] 증가율도 낮아질 것이다〈그림 17〉. 1인당GDP 증가는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17]할 경우 취업자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IMF, 2024).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할 때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이는 1인당GDP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 이후에는 1인당GDP 증가율도 구조적 하락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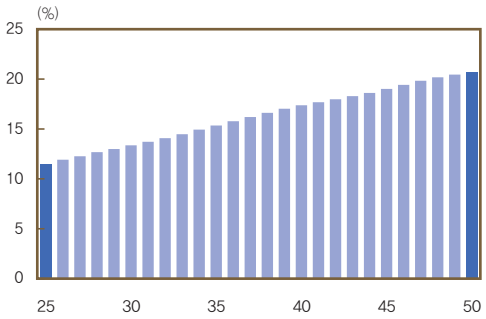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금 · 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8〉. GDP 대비 연금 · 의료지출 부담은 연금의 소득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동일[18]할 때 고령층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결정된다(IMF, 2016).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된다. 추정 결과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_{2025년}$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된다[19].

〈그림 17〉 1인당GDP 기여도 전망[1)2)]



주: 1) 생산성 증가율과 근로자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인구와 취업자수 변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1인당GDP에 대한 종합전망은 아님에 유의
2) 인구는 15세 이상 기준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그림 18〉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1)]



주: 1) 연금의 소득대체율 등이 일정하다고 가정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자 추정

16) 보다 자세한 설명은 〈참고 3〉 「1인당GDP 증가율 분해」와 〈참고 4〉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분해」를 참고하기 바란다.
17) Cobb-Douglas 생산함수에서 1인당GDP 증감률은 "생산성 증가율 + 자본의 소득분배율(α) × 근로자 1인당 자본량 증감률 + 취업자수 증감률 − 인구 증감률"로 분해된다. 본고에서는 생산성 증가율과 근로자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18)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추정 시에는 연금 소득대체율, 연금 수혜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의료비지출 비율 추정 시에는 고령층의 상대적 의료비용 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19)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은 4.0%, GDP 대비 공적의료비지출은 6.1%로 총 10.1%이다.

Ⅳ. 정책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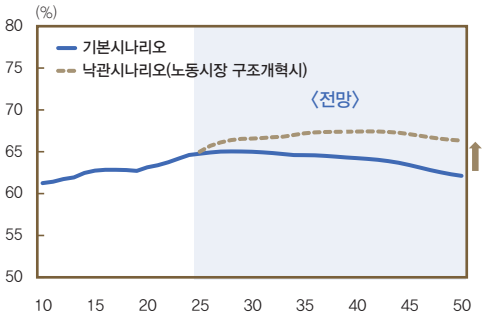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가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감소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구조적 제약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대신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할 과제라 하겠다.

성 · 연령별로 보면, 우선 고학력자 비중이 큰 은퇴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만큼[20] 이들의 인적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속근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제약되고 있다. 실제로 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0년 동안 정체되었다. 출산 및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충해 가야 한다. 특히, M자형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나타나지 않는 국가에서 활용하는 유연근무,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도 등의 제도를 적극 도입할 시기이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주요국에 비해 낮다. 교육, 군복무 등의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진입시기가 빨라지도록 업무병행 학업 제도를 확대하고 첫 직장이 생애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출산율 회복은 주택시장 안정, 자녀 보육 및 교육비 절감, 지역불균형 해소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있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여 인력 공백을 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기본시나리오 대비 4%p가량 높아진다면[21] 고용 감소가 성장과 소득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연금과 의료지출 부담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9〉〈그림 20〉. 구체적으로 취업자수 감소시점을 5년 가량 늦추고 2050년경 취업자수 규모를 지난해 수준의 95%까지 높일 수 있다〈그림 20〉. 1인당GDP는 기본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0.3%p$_{2025\sim50년중}$ 높아질 것이며, GDP 대비 연금 · 의료지출액 비율도 2050년 기준 1.3%p를 완화될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21〉〈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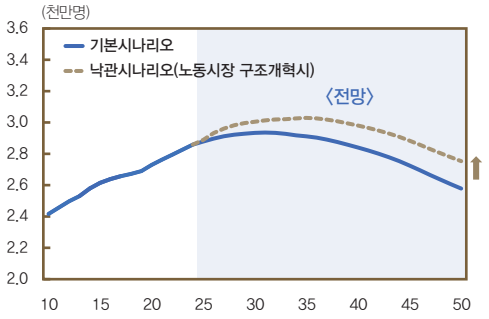
〈그림 19〉 시나리오별 경제활동참가율[1)]



주: 1) 낙관시나리오 :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만큼 추가 상승하는 경우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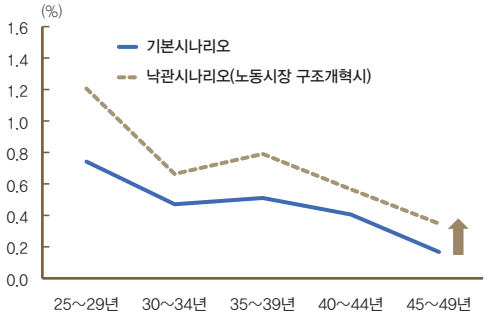
20) 자세한 내용은 〈참고 5〉「성 · 연령 그룹별 경제활동참가율 특징」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기본시나리오에 비해 매년 지난 10년(15~24년) 동안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만큼 추가 상승하는 경우를 전제하였다.

〈그림 20〉 시나리오별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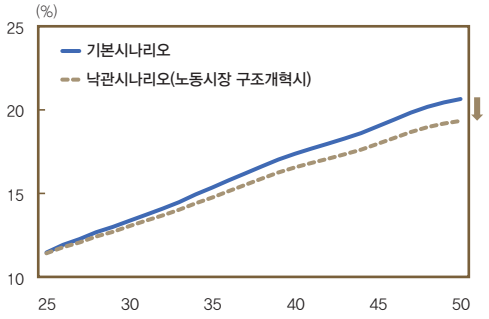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그림 21〉 시나리오별 1인당GDP 증가율[1)2)]



주: 1) 생산성 증가율과 근로자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인구와 취업자수 변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1인당GDP에 대한 종합전망은 아님에 유의
2) 인구는 15세 이상 기준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그림 22〉 시나리오별 GDP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1)]



주: 1) 연금의 소득대체율 등이 일정하다고 가정
자료: 통계청, 저자 추정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더불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고용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제도 개편은 청년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기존의 인적자본을 계속 쌓을 수 있다면, 고령층이 생애를 통해 축적한 인적자본을 은퇴 후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여성 · 고령층 생산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22)].

22) 통계청에 따르면 55~64세 기준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평균 만 49.4세(2024년 기준)로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인적자본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 1〉

추세 취업자수 추정모형 개요

추세 취업자수는 추정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특히 변동성이 큰 추세 경제활동참가율 추정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Bidder *et al*., 2016). 또한 시계열이 추가될 때 과거 실적치도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추세 취업자수에 대한 여러 추정방식을 통해 강건성(robust) 검정을 실시하였다. 추정 결과, 코호트 모형 결과가 강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코호트(cohort) 모형(기본모형)

□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세를 구조적 요인으로, 나머지(residual)를 경기적 요인으로 구분*(Aaronson et al.(2006, 2014), Baller *et al*.(2009))

* 관련 문헌 중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접근 방식

■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는 고령화, 고학력화 등의 구조요인과 추가 노동자효과, 실망실업자 효과 등 경기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실업률에도 이력효과 등의 구조요인과 불확실성, 단기정책 등으로 인한 경기요인이 혼재

○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 · 연령별* 22개 그룹별로 연령효과, 코호트 효과, 사회 · 제도적 효과를 반영하여 추세를 추정하며, 자연실업률은 실업자의 구직기간 분포를 활용하여 추정(오삼일 · 이종하 · 안희주(2021))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text{경제활동참가율}_{a,t,s} = \underbrace{A_{a,s}}_{\text{성 연령 효과}} + \underbrace{\sum_{b=1950}^{1995} C_{a,b,t,s}\,\beta_{b,s}}_{\text{코호트 효과}} + \underbrace{X_{a,t,s}\,\lambda_{a,s}}_{\text{사회제도적 효과}} + \epsilon_{a,t,s}$$

(단, a는 연령, s는 성별, b는 출생연도, A는 성별 · 연령별 고정효과, C는 성별 · 출생연도별 고정효과, X는 {교육수준, 기혼비중, 출산율, 기대수명, 최저임금}을 의미)

2. Summers & Clark (1981) 모형

□ 코호트 모형이 구조적 요인을 먼저 추정하고 나머지(residual)를 경기적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경기적 요인을 먼저 추정한 후 나머지를 구조적 요인으로 해석

○ 22개 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경기적 요인을 시계열 모형으로 추정 후 가중 평균

$$Outcome_t = \beta_0 + \beta_1 T_t + \beta_2 T_t^2 + \beta_3 T_t^3 + \sum_{q=1}^{4} \gamma_q C_{t-q} + \sum_{q=2}^{4} \delta_q D_{q,t} + \epsilon_t$$

(단, outcome은 경활률 또는 실업률, T는 추세(trend), C는 경기(경기동행 순환변동치 자료), D는 분기더미, ϵ=오차, 하첨자 t는 시점)

3. 미 연준 모형

□ 취업자수 증가율을 인구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율, 취업률(=1-실업률) 변화율로 나누고 각 요인의 추세를 추정

○ 인구 증감률은 HP filter를 이용하여 추세와 순환으로 구분

○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코호트 모형으로 추정한 후 HP filter로 다시 평활화(의회예산처(CBO) 추정자료 활용)

○ 자연실업률은 필립스 커브 기반 추정치 사용(의회예산처(CBO) 추정자료 활용)

4. One-sided HP filter

□ 구조적 요인 혹은 경기적 요인을 추출하는 모형들은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제활동참가율과 자연실업률을 HP filter*로 추정

* 끝단치 문제(end-point problem)를 고려하여 일방향 HP filter 활용

○ 경제활동참가율은 성별 · 연령별 22개 그룹으로 추정 후 가중 평균

5. 은닉인자 모형

□ 취업자수를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로 분해하는 방식이 아닌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정

○ 은닉인자 모형*과 VAR**을 결합한 시계열 모형을 설정한 후 취업자수를 추세 부분과 순환 부분으로 분해

* 추세 취업자수 증감률은 잠재 성장률과 인구 증감률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

** 순환 취업자수 증감률은 거시경제 상황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률, 실질GDP갭, 경제심리지수(E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을 변수로 하는 VAR 모형을 설정

추세 취업자수 추정 결과

	11~18년 평균				19~24년 평균			
	전체	(인구)	(경활률)	(1-실업률)	전체	(인구)	(경활률)	(1-실업률)
■ 코호트 모형기본모형	32	25	7	-1	31	14	13	4
■ 기타 모형(평균)	33	25	9	0	30	14	10	5
❶ Summers & Clark 모형	33	25	7	0	31	14	10	6
❷ 미 연준 모형	33	25	9	-1	27	14	9	4
❸ 일방향 HP 필터	35	25	10	0	30	14	10	6
❹ 은닉인자 모형	31	-	-	-	31	-	-	-

〈참고 2〉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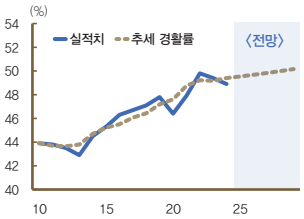
□ 성 · 연령 하위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세가 지속되다가 일부 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OECD 또는 일본)에 수렴한다고 가정하였으며, 단 · 중기적(10년 이내)으로는 최근 경기, 제도 등의 영향도 일부 반영

○ **(고령층)**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여력이 있으나,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에서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승세가 완만히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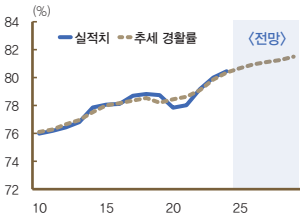
○ **(여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_{15\sim64세}$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추가 상승여력은 있으나, 경력단절, 육아부담 등으로 30~4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전제

○ **(청년)** 청년층은 이중구조 해소 지연 등으로 구직포기, 쉬었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제약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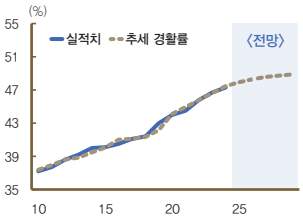
청년층(15~29세) 경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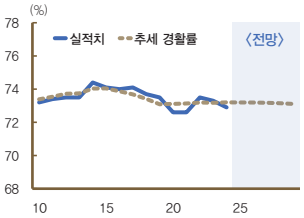
핵심연령층(30~59세) 경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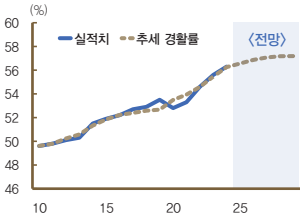
고령층(60세 이상) 경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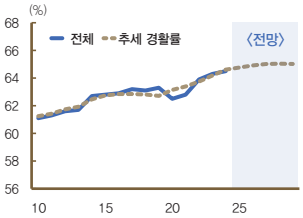
남성 경활률



여성 경활률



전체 경활률



〈참고 3〉

1인당GDP 증가율 분해

□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할 경우 1인당GDP 증가율은 생산성, 근로자 1인당 자본사용량,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증감률의 합으로 구성(IMF, 2024)

○ 1인당GDP 증가율은 생산성, 근로자 1인당 자본사용량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취업자수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1-실업률)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변동

▸ 수식분해

$$\frac{Y_t}{N_t} = A_t \times \left(\frac{K_t}{E_t}\right)^{\alpha} \times \frac{E_t}{N_t}$$

(단, $\frac{E_t}{N_t} = \frac{E_t}{LF_t} \times \frac{LF_t}{N_t} = ER_t(\equiv 1 - \text{실업률}) \times LP_t(\text{경활률})$)

$$\begin{aligned}\Delta y_t - \Delta n_t &\approx \Delta a + \alpha(\Delta k_t - \Delta e_t) + \Delta e_t - \Delta n_t \\ &= \Delta e_t - \Delta n_t \ (\Delta a = 0,\ \Delta k_t - \Delta e_t = 0 \text{ 가정 시}) \\ &= \Delta er_t + \Delta lf_t \\ &= \Delta lf_t \ (\Delta er_t = 0 \text{ 가정})\end{aligned}$$

▸ 변수 설명: Y는 취업자수, A는 생산성, K는 자본, N은 15세 이상 인구,
E는 15세 이상 취업자수, LF(labor force)는 경제활동참가인구,
ER(employment ratio)은 1-실업률,
LP(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는 경활률,
소문자는 증감률(log 전환 후 차분), 하첨자 t는 시점

〈참고 4〉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분해

□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연금의 소득대체율, 연금수혜비율, 고령층 비중, 경제활동참가율*로 분해 가능(IMF, 2016)

* 이하 자연실업률을 0으로 가정(고용률=경활률)

○ 연금지출 비율$_{\text{GDP 대비}}$은 연금 소득대체율과 수혜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고령층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변동

* 국민연금자료로 추정(RR=2025년 현재 40%, CR=51.2%(2023년말 기준))

▶ 수식분해

$$\frac{PE_{65+}}{GDP} = \frac{\dfrac{PE}{Pensioners}}{\dfrac{GDP}{E_{15+}}} \times \frac{Pensioners}{P_{65+}} \times \frac{P_{65+}}{P_{15+}} \times \frac{P_{15+}}{E_{15+}}$$

$$= RR(\text{소득대체율}) \times CR(\text{수혜비율}) \times OR(\text{고령층 비중}) \times \frac{1}{LP(\text{경활률})}$$

▶ 변수 설명:

PE(pension expenditure)는 연금지출액, Pensioners는 연금수혜자수,
P(population)는 인구, E(Employed)는 취업자수,
RR(replacement rate)은 1인당 GDP 대비 연금수혜자 1인당 지출액(소득대체율),
CR(coverage rate)은 65세 이상 인구 중 수혜자 비율,
OR(old-age rate)은 15세 이상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LP(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는 경활률,
하첨자 65+는 65세 이상, 15+는 15세 이상 의미, 하첨자 t(시점) 생략

□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율]** 비고령층에 대한 의료지원 정도, 고령층의 상대적 의료비용, 고령층 비중, 경제활동참가율로 분해 가능

○ 비고령층 의료지원 정도와 고령층 상대적 의료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고령층 비중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변동

* 건강보험 2023년 자료로 추정(GHP=1.6%, 고령층 상대적 의료비용 = α = 3.4배)

▶ 수식분해

$$\frac{HE_{15+}}{GDP} = \frac{\frac{HE_{15\sim64}}{P_{15+}}}{\frac{GDP}{E_{15+}}} \times \frac{P_{15+}}{E_{15+}} \times \left(1 + \frac{\frac{HE_{65+}}{P_{65+}}}{\frac{HE_{15\sim64}}{P_{15\sim64}}} \times \frac{P_{65+}}{P_{15\sim64}}\right)$$

$$= GHP \times \frac{1}{LP(\text{경활률})} \times (1 + \alpha \times OR'(\text{고령층비중}))$$

▶ 변수 설명:

HE(health expenditure)는 의료비지출액,

GHP(generosity of the health care package for the younger population)는 1인당GDP 대비 1인당 비고령층(65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지출 비율,

α (the ratio of per capita health cost for the older population to that for the younger population)는 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의료비지출 비율,

OR'(old-age rate)은 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하첨자 t(시점) 생략

〈참고 5〉

성 · 연령 그룹별 경제활동참가율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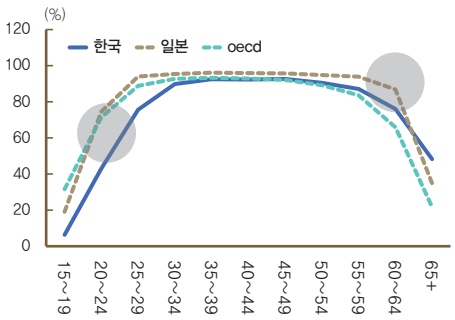
□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과 일본에 비해 낮았으며, 은퇴연령층인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본보다 크게 낮았음

○ 20년 전에 비하면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으며, 10년 전보다는 65세 이상에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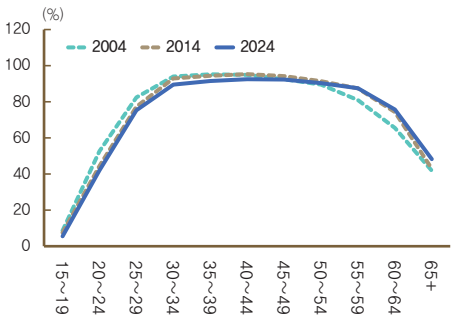
□ **[여성]** 일본에 비해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으며, OECD와 달리 경력단절, 육아부담 등으로 M자 형태가 뚜렷

○ 지난 10년 동안 청년층과 40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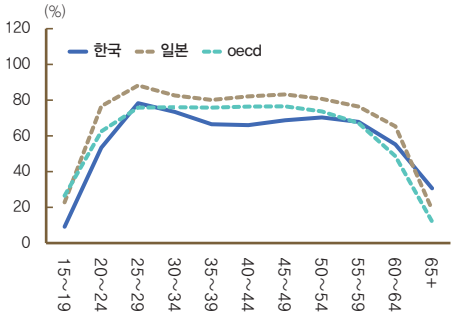
남성 경활률 국제비교(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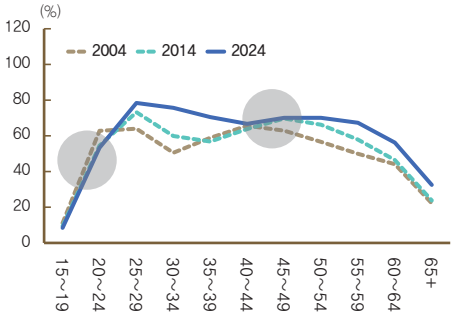
한국 남성 경활률 변화



여성 경활률 국제비교(23년)



한국 여성 경활률 변화



〈참고문헌〉

Aaronson, D., Hu, L., Seifoddini, A., and Sullivan, D., “Declin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unemployment and employment growth”, Economic Perspectives 4Q/2014,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2014

Aaronson, D., Brave, S., and Kelley, D., “Is there still slack in the labor market?” Chicago Fed Letter, 2016-359, Nov. 2016

Aaronson, Daniel, and Brave, S. “Estimating the trend in employment growth”, Chicago Fed Letter, July 2013.

Aaronson, D., Hu, L., Seifoddini, A., and Sullivan, D. G., “Changing labor force composition and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Chicago Fed Letter, 2015

Aaronson, S., Cajner, T., Fallick, B., Galbis-Reig, F., Smith, C., and Wascher, W., “Labor force participation: Rec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4(2), 197-275.

Aaronson, S., Fallick, B., Figura, A., Pingle, J. F., and Wascher, W. L, “The recent decline in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its implications for potential labor suppl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6(1), 69-154.

Amaglobeli, M. D., and Shi, W., “How to assess fiscal implications of demographic shifts: A granular approach”,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6

Balleer, A., Gomez-Salvador, R., and Turunen, J.,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the Euro Area: A Cohort Based Analysis”, Working paper series No. 1049, ECB, May 2009

Bidder, R., Mahedy, T., and Valletta R, “Trend Job Growth: Where’s normal?” FRBSF Economic Letter, 2016-32, Oct. 2016

Blanchard, O. J., Nordhaus, W. D., and Phelps, E. S., “The Medium Ru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7(2), 89–158

Clark, Kim and Summers, L., “Demographic Differences in Cyclical Employment Fluctua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6, no.1 (Winter), 61-79, 1981

Daly, K., Njie, M., Allen, J., “The Path to 2075- The Positive Story of Global Aging”, Goldman Sachs, 202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Dept, “2. Reversing the Trend: Enhancing Medium-Term Growth Prospects”,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24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JILPT), “Employment and Job Resignation among Japanese Youth”, JILPT Research Report No. 248, 2024

Montes, Joshua., “CBO's Projection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2018

강규호 · 오삼일, 취업자수 추세-순환 분해와 전망, 계량경제학보, 35(4) 1-31, 2024

박창현 · 유민정,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둔화 요인 및 평가, BOK 이슈노트 제2020-5호, 2020

오삼일 · 이종하 · 안희주,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 BOK 이슈노트 제2021-10호, 2021

오삼일 · 이종하 · 배기원, 베버리지 곡선을 통한 노동시장 평가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2-32호, 2022

오삼일 · 정선영 · 이종하 · 한지우, 여성 고용 회복세 평가 : From she-cession to she-covery, BOK 이슈노트 제2023-17호, 2023

이동원 · 김혜진 · 성원 · 정종우 · 염지인 · 김도완,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 경제전망보고서(2023.5), 2023

이은경 · 천동민 · 김정욱 · 이동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BOK 이슈노트 제2024-33호, 2024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2025-17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